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52장 거짓 선지자들

『산상설교』 하권 제52장, 인쇄 298~310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15~16

> ❓ 다정하고 위로가 되는 설교인데,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먼저 이 경고가 놓인 자리를 짚는다. 좁은 문 초대(7:13~14) 바로 뒤, 심판으로 끝나는 산상설교 결론부의 문맥이다. 이어 거짓 선지자를 '가르침'만으로 볼지 '삶'만으로 볼지를 두고 갈린 두 해석을 검토한다. 그리고 두 요소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핵심은 미묘함이다. 거짓 선지자는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빼고 말하기 때문에 거짓이다. 그래서 그가 말하지 않는 교리들, 곧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 최후 심판, 죄의 사악성, 대속, 회개, 참된 성결을 하나씩 짚는다. 끝으로 이것이 당시 교회가 허약해진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자신도 이 본문이 달갑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정직하게 풀었다고 고백하며 마친다.

📜 절별 정리

📜 1. 좁은 문 바로 밖에 서 있는 자들 — 경고의 자리

로이드 존스는 7:15~16이 7:13~14의 좁은 문 초대를 구체화한 말씀이라고 본다. 주님은 좁은 길을 가려는 사람이 만날 위험과 방해물을 보여 준다. 복음은 듣고 칭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적용되어야 한다. 야고보가 말한 대로 율법의 거울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것이 위험이다. 산상설교의 결론부는 두 가지 특수한 경고(거짓

삶의 부족이 이 사실을 놓친 데서 나온다고 진단한다. 주님은 우리가 둔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같은 진리를 반복하신다. 옛 성공회 교회 벽에 십계명을 써 붙인 것도 잊기 쉬운 경향 때문이었다. 그는 장면을 그려 보게 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늘 좁은 문 바로 밖에 서서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설득한다.

1. 7:15는 7:13~14 좁은 문 초대의 연장이다
2. 결론부 전체가 심판에 관한 경고다
3.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4. 주님은 우리가 잊기 쉬워 반복하신다
5.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 앞에서 막아선다

마태복음 7:13-14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거짓 선지자 경고의 바로 앞 문맥이다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15-16

설교 본문.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열매로 아는 법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야고보서 1:23-25

거울을 보고 잊는 사람.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 위험

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24-27

반석과 모래 위의 두 집. 결론부가 심판으로 끝남을 보여 준다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 2. 가르침인가, 삶인가 — 두 해석과 미묘함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두 견해가 있다. 첫째는 '열매'가 오직 교훈과 교리를 가리킨다고 본다. 이 견해를 따르는 개신교 해석가들은 그 대표 예로 로마교회를 들었다. 둘째는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삶의 문제라고 본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이 본문이 이단을 가려내는 시금석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위선자, 특히 자기가 위선자인 줄 모르는 '무의식적 위선자'의 가면을 벗기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두 해석이 다 옳고 다 틀렸다고 말한다. 틀린 점은 한쪽만 맞다고 하는 데 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다. 두 요소를 함께 보아야만 본문이 풀린다. 근거는 '양의 옷'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미묘함이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노골적 이단, 또는 눈에 띄는 악행은 누구나 알아본다. 그러나 주님이 경고하신 자는 처음에는 결코 그런 자라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다. 베드로후서도 그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한다. 거짓 선지자는 호감 가고 붙임성 있으며,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생활도 맞아 보인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르침과 생활 모두에서 잘못되게 되어 있다.

1. 교훈만 본 해석: 로마교회를 예로 듦
2. 삶만 본 해석: 맥클라렌, 무의식적 위선자
3.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것이 잘못이다
4. 노골적 이단·악행은 누구나 알아본다

마태복음 7:16

'열매로 안다'. 두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다

>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베드로후서 2:1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거짓 선지자의 미묘함을 보여 준다

>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 3. 좁은 문이 없는 복음 — "평강하다, 평강하다"

로이드 존스는 본문을 바로 이해하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말한다. 거짓 선지자는 복음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자연인(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거슬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박해받거나 호되게 비판받는 일이 없다. 자유주의자에게도 복음주의자에게도 칭찬받는 '약방의 감초'다. 그러나 '십자가의 거치는 것'이 없다. 좁은 문이 무엇인지 보이려고 그는 구약으로 간다. 베드로가 구약의 거짓 선지자와 교회의 거짓 선생을 나란히 놓았듯이 그 유형은 변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편협한 이단 사냥꾼이라 조롱했다. 무서운 것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라는 말씀이다. 그 메시지가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1. 거짓 선지자의 복음엔 좁은 문이 없다
2. 모든 이에게 칭찬받고 박해받지 않는다
3. 예레미야 시대의 “평강하다”가 그 원형이다
4. 상처를 가볍게 다루는 위로다

베드로후서 2:1

구약의 거짓 선지자와 교회의 거짓 선생을 연결한다. 유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레미야 8:11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평강하다” 한다. 거짓 위로의 본보기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5:31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 듣는 쪽의 책임을 보여 준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갈라디아서 5:11

'십자가의 거치는 것'. 참 복음에 반드시 있는 걸림돌이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거짓 선지자는 그의 복음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 4. 말하지 않는 교리들 — 침묵으로 거짓되다

공의와 진노를 말하지 않고 사랑 하나만 강조한다. 로이드 존스는 진리를 감추는 것이 노골적 이단만큼 저주받을 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결과를 '노략질하는 이리'에 비유한 것이다. 둘째, 최후 심판과 버림받은 자의 영원한 운명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이들은 베드로후서가 자기 교리에 맞지 않아 그 정경성을 부정하려 했다. 그러나 같은 메시지는 유다서에도, '부드러운 사도' 요한의 서신에도 있다. 주님도 바로 이 산상설교에서 심판을 다루신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장차 올 심판을 설교한 것과 같다. 셋째, 죄의 사악성과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는 데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온 인류가 죄인이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진리 대신, 개별적인 죄만 다룬다. 넷째, 십자가를 말하기는 하지만 대속을 말하지 않는다. 로이드 존스는 시험 기준을 준다. 그리스도가 내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신 것이 유일한 화해의 길이라고 그가 믿는가? 그는 십자가를 아름다운 사랑의 철학이나 감상으로 만든다. 성부가 성자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언약으로 보지 않는다.

1. 틀린 말이 아니라 '빠진 말'이 문제다
2.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를 말하지 않는다
3. 최후 심판과 영원한 운명을 말하지 않는다
4. 죄의 사악성과 인간의 무능을 흐린다
5. 십자가를 말해도 대속은 빼 버린다

> **사도행전 24:25**
> 바울이 벨릭스에게 장차 올 심판을 설교했다. 참 설교에는 심판이 있다
>
>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 **로마서 3:23**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인류 전체의 죄책을 보여 준다
>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로마서 7:13**
> 죄가 심히 죄 되게 한다. 죄의 사악성 교리의 근거다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1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3:25-26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대속이 필요한 이유다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다. 대속의 핵심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3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진리를 감추는 것은 철저한 이단을 전파하는 것만큼이나 괘씸하고 저주받을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의 가르침에는 구원에 이르는 매우 큰 문과 매우 넓은 길이 있다. 죄성이나 검은 마음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결정'만 하면 된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청교도, 요한 웨슬리, 조지 윗필드의 전도와 대조한다. 그들의 전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했고, 때로는 몇 주, 몇 달씩 고뇌하게 했다. 존 번연은 『은혜가 넘치다』에서 18개월 동안 회개의 고통을 겪었다고 썼다. 회개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있고 진노와 지옥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에서 등을 돌리고, 대가가 어떻든 생각과 전망까지 세상을 버리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가족이 나를 종교광이라 하거나 돈을 잃어도 상관없다. 또 거짓 가르침은 산상설교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리새인처럼 성결을 서너 가지 '하지 않는 일'로 떨어뜨린다. 요한일서가 말하는 세상 사랑, 특히 '이생의 자랑'은 교회의 가장 큰 저주거리 가운데 하나인데도 다루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는 넓은 길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걷게 된다.

1. '결정만 하면 된다'는 넓은 문을 경계한다
2. 번연은 18개월간 회개의 고통을 겪었다
3. 회개는 죄 자각과 세상을 버림이다
4. 바리새식 성결은 '안 하는 몇 가지'뿐이다
5. 이생의 자랑은 교회의 큰 저주거리다

> **마태복음 16:24**
>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회개의 내용이다
>
>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 **요한일서 2:15-16**
> 세상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참된 성결의 기준이다
>
>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 **마태복음 7:13**
> 넓은 문과 넓은 길. 쉬운 결단주의가 가는 방향이다
>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 6. 오늘의 교회와 설교자의 고백

로이드 존스는 시대 분위기를 정면으로 다룬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 형제로 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은 “삼가라” 하셨다. 그는 균형도 잊지 않는다. 비판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 맥클라렌의 말대로 그들은 무의식적 위선자다. 그러나 친절과 정중함을 성도다움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격이나 개성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호감 가는 성품이 가장 위험한 점이다. 멸망의 길이 있는데 그들은 멸망을 믿지 않는다. 그는 교회가 허약하고 무력해진 원인으로 지난 세기 고등비평 운동에서 나온 설교를 지목한다. 그 설교는 교리를 정죄하고 도덕과 정신 고양을 말했다. 예화는 문학과 시에서 가져왔고, 에머슨이 대제사장처럼 대접받았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했기에 이단으로 몰리지 않았다. 그러나 구원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말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텅 빈 교회와 수준 미달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이 책임이 우리 대다수에게 있다고 말한다. 끝으로 그는 산상설교 전체를 설교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이 본문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심판의 문맥에 넣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는 이단 사냥꾼으로 불릴 위험을 무릅쓰고 정직하게 풀었다. 그리고 청중에게 영원한 운명을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1. “누구나 형제” 분위기에도 주님은 삼가라 하셨다
2. 비판·멸시는 금물, 친절≠성도다움
3. 호감 가는 성품이 가장 위험한 점이다
4. 고등비평 이후 설교가 교회를 약하게 했다
5. 좋아하는 본문만 고르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삼가라". 시대 분위기보다 주님의 명령이 앞선다

>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태복음 7:13

멸망의 길이 실제로 있다. 거짓 선지자가 부정하는 현실이다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친절과 정중함을 성도다움으로 오인해서도 안 됩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사람을 좁은 문에서 멀어지게 하는 교사.

양의 옷과 노략질하는 이리

겉은 온순하고 매력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영혼을 파멸시키는 존재를 그린 비유.

무의식적 위선자

자기가 위선자인 줄 모르는 채 겉과 속이 어긋난 사람(맥클라렌의 표현).

대속적 속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과 화해할 길을 여셨다는 교리.

십자가의 거치는 것

회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받을 형벌을 깨닫고, 죄와 세상에서 돌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성결(성화)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 삶과 생각에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

고등비평
성경을 다른 고대 문헌처럼 다루며 그 권위와 기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19세기 학문 운동.

정경성
어떤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속하느냐의 문제.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 바로 앞에서, 노골적 이단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위로가 되는 얼굴로 온다.
- 그의 거짓은 틀린 말보다 '말하지 않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 심판, 죄의 사악성, 대속, 회개, 참된 성결이 빠져 있다.
- 분별의 기준은 성품이나 호감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느냐다.
- 비판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삼가라” 하셨으니 분별은 사랑의 일부다.
- 듣기 싫은 본문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의 문맥에 두신 말씀이니, 우리는 정직하게 듣고 실천해야 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